

# 셀 모임 순서지 (2024년 9월 둘째주)

##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내가 당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 Worship - 찬양

☞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안에 있는 나에게

## Word - sharing

###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인생의 문제 앞에(합1:1-11)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합1:6-8)

그러나 바벨론 역시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 결국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불과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박국의 첫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첫번째 답변을 통해 세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해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의 기도를 하십시오. 시편의 기자도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탄식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1)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시22:1-2)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애5:20)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27:46)

또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40:1)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14)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21:14)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23:10)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므깃도에서 죽은 요시야는 39살에 요절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이른 죽음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게 내리신 판단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슬한 의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껴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슬한 인생의 의문들 앞에서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 의심이 밀려올 때도 확신을 갖는 것,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2. 적용**

- 1)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이해할 수 없으나 신뢰하였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 1. 11월 예나주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변하게 하옵소서.
- 2. 하반기 양육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 3. 모든 부서와 셀이 부흥케 하소서.
- 4. 담임목사님께 건강과 은혜를 더하소서.

**넘지 못할 산이 왔거든**

넘지 못-할 산이 왔거든 - 주님께 말기 세 요  
 참지 못-할 불노였거든 - 주님께 말기 세 요  
 넘지 못-할 파도왔거든 - 주님께 말기 세 요  
 참지 못-할 솔풍왔거든 - 주님께 말기 세 요  
 우리가야 할 걸은 - 멀고도 - 험하여 -  
 우리 살아 갈 걸은 - 눈물이 - 꿀짜기 -  
 허덕이며 가야하는 우리 인생인 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 늘 흐느끼 내  
 아릴때우린누울 의지하네요 - 주님 밖에없어요 -  
 나는 그길 갈수없지 만 주님이 대신가 요

(통일 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  
 인도와 보호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E. E. Hewitt, 1898 주위 음레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 119:54)  
 보령으로 SINGING GO: 8.6.8.6 REF.  
 W. J. Kirkpatrick (1838-1921)

1. 주 안에 있 는 나 에게 판 근 심 있 으 라  
 2. 그 두 려움 이 변 하여 내 기 도 되 었 고  
 3. 내 주 는 자 비 하 셔서 늘 함 께 계 시 고  
 4. 내 주 와 맺 은 언 약 은 영 불 변 하 시 니  
 십 자 가 밀 에 나 아 가 내 짐 을 풀 었 네  
 전 날 의 한 숨 변 하여 내 노 래 되 었 시 네  
 내 궁 꾱 함 을 아 시고 늘 채 워 주 시 네  
 그 나 라 가 기 까 지는 늘 보 호 하 시 네  
 후렴  
 주님을 찬 송 하 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고 험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리